

#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3.8

## 미 증시, 파월 의장의 강한 매파적인 발언으로 하락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 미 증시 동향: 파월 연준 의장의 강한 매파적인 발언 여파로 부진

•미 증시는 파월 의장의 강한 매파적인 발언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 특히 최고 금리가 이전 전망보다 높아지고 3월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부담. 이 여파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확대돼 금융주가 하락 주도. 장 마감 앞두고는 친강 중국 외교 부장의 미-중 갈등 언급과 파월 발언 영향이 더욱 확대되며 2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는 등 금리 급등으로 지수 낙폭 확대 마감(다우 -1.72%, 나스닥 -1.25%, S&P500 -1.53%, 러셀2000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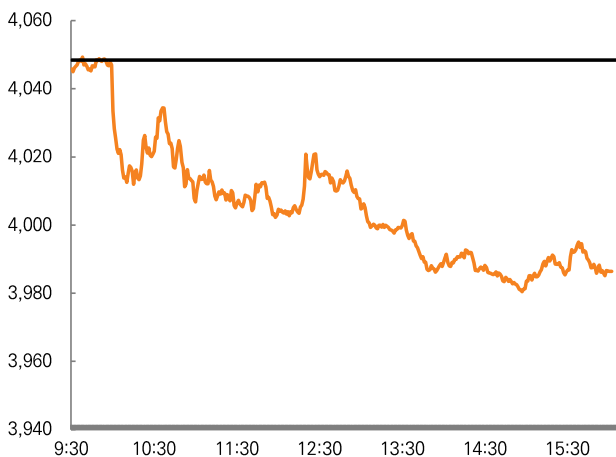
### 특징 종목: 금융주, 전기차 업종 부진 Vs. AMD 상승

•AMD(+1.17%)와 엔비디아(-1.10%)는 중국의 AI 서버 공급 업체인 인스퍼 그룹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상장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하기도 했으나, 엔비디아는 금리 여파로 하락 전환. AMD 등의 인스퍼 그룹에 대한 판매 중단 여부가 주목 받고 있는데 미 증시에 인스퍼가 상장될 경우 판매 지속 기대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 리비안(-14.54%)은 R2 차량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13억 달러 규모의 CB를 발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 이는 루시드(-5.78%) 등 전기차 및 2차 전지 업종의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와 관련 종목의 약세를 촉발. 아마존(-0.21%)은 골드만 삭스가 올해 최고의 선택이라며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자 제한적인 하락

### 한국 증시 전망: 하락 출발 후 제한적인 등락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2.80%, MSCI 신흥 지수 ETF는 1.6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6.22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6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10% 하락. KOSPI는 1% 내외 하락 출발 예상.  
 •미 증시가 파월 연준 의장의 강한 매파적인 발언으로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달러화의 강세가 뚜렷해 NDF 달러/원 환율을 감안 원화 약세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외국인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그렇지만, 파월 연준의장이 3월 FOMC 회의까지의 지표 결과가 중요하고, 1월 경제지표가 온화한 기후의 영향 때문이라며 연속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1%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63.35	+0.03	상해종합	3,285.10	-1.11
KOSDAQ	815.76	-0.09	홍콩항생	20,534.48	-0.33
DOW	32,856.46	-1.72	베트남	1,037.84	+1.04
NASDAQ	11,530.33	-1.25	유로스톡스 50	4,278.96	-0.81
S&P 500	3,986.38	-1.53	영국	7,919.48	-0.13
캐나다	20,276.76	-1.16	독일	15,559.53	-0.60
일본	28,309.16	+0.25	프랑스	7,339.27	-0.46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 ① 파월 의회 청문회 ②미-중 갈등

미 상원에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토대로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파월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1월 고용과 소비, 생산, 인플레이션은 불과 한달 전 데이터에서 보았던 완화 추세를 부분적으로 역전시켰다고 언급. 이는 온화한 날씨에 따른 것이기에 지켜봐야 하지만, 이전보다 인플레가 높아졌음을 시사한다고 주장. 인플레 관련해서는 상품 부문은 둔화되고 있고, 주택 서비스 관련 인플레는 향후 1년동안 감속할 것임을 보여줬다고 언급. 다만, 주거를 제외한 핵심 서비스 부문은 현재까지 둔화 조짐이 거의 없다며 우려를 표명. 성장은 추세를 밀도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상당히 둔화되었으나, 고용이 극도로 타이트하다고 주장.

이를 토대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어 공격적인 금리 수준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 더불어 지표 결과가 더 빠른 긴축이 보장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해 3월 회의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을 시사. 이러한 파월 연준의장의 모두 발언은 지난 금요일 발표된 통화정책 보고서 내용보다 매파적인 내용을 포함해 달러 강세 및 금리 상승을 부추겼고, 이 여파로 주식시장은 약세로 전환.

이후 의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연준은 최대 고용을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 인플레와 관련해서는 주택을 제외한 핵심 서비스 물가가 중요해졌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주장. 더불어 고용은 견조하지만, 임금 상승은 고용이 악화되지 않은 가운데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과도한 인상이라는 데이터는 없고, 오히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주장. 여기에 3월 FOMC까지는 살펴볼 데이터가 많으나, 다음 회의에서 최고 금리는 12월보다 높을 수 있다고 주장. 노동시장 여건은 다소 누그러질 것이며 더 많은 이민이 노동력 부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결국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3월 FOMC에서 연준이 제시할 최고 금리 전망은 기존의 5.1%에서 5.6%까지 상향 됐으며, 3월 회의에서 50bp 인상 확률은 31.4%에서 67.5%로 상향 조정. 지난 금요일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25bp 금리인상을 시사한 점과 달리 다시금 50bp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줘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 다만, 지난 1월 지표 결과는 온화한 날씨에 따른 결과이기에 여전히 경제지표를 봐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한발 물러서기도 해 지수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물론, 그동안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은 존재하나 2024년 경기와 그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여전히 조정시 매수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한편, 중국의 천강 외교 부장이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중 갈등에 대해 경고한 점도 장 후반 시장 부진에 영향. 특히 미국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분쟁과 대결’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매우 강경한 어조로 발언함. 이는 지난 월요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전인대에서 연설과 께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 우려가 높아짐. 이 소식에 중국 관련 종목군의 하락폭이 뚜렷.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과 경쟁은 하되 갈등은 추구하지 않으며, 여전히 대 중국 정책 변화는 없다며 중국 천강 부장의 발언에 대해 반박. 더 나아가 대만 독립도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의 중국 정책은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해 관련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금융주, 전기차 업종 부진

AMD(+1.17%)와 엔비디아(-1.10%)는 중국의 AI 서버 공급 업체인 인스퍼 그룹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상장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하기도 했으나, 엔비디아는 금리 여파로 하락 전환. AMD 등의 인스퍼 그룹에 대한 판매 중단 여부가 주목 받고 있는데 미 증시에 인스퍼가 상장될 경우 판매 지속 기대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2.99%)은 법무부가 제트블루(-2.86%)의 아메리칸 에어라인(+1.49%) 인수를 막기위한 소송을 제기하자 상승. 더불어 BNP 파리의 투자이견 상향 조정도 긍정적인 영향. 델타항공(+1.59%) 등도 동반 상승.

리비안(-14.54%)은 R2 차량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13억 달러 규모의 CB를 발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 이는 루시드(-5.78%) 등의 약세를 촉발했고, 쿼텀 스케이프(-5.47%), 알버말(-3.11%)등도 동반 하락. 니오(-3.65%), 샤오핑(-7.90%), 리 오토(-5.64%) 등 중국 전기차 업종은 미-중 갈등 우려가 부각되는데다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 여파도 더해져 낙폭이 컸음.

JP모건(-2.94%), BOA(-3.20%), 웰스파고(-4.68%) 등 금융주는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단기 금리가 급등하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되자 예대마진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하락. US 방코프(-3.23%), TFC(-4.46%) 등 중소형 지방 은행도 동반 하락. 아마존(-0.21%)은 골드만 삭스가 올해 최고의 선택이라며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자 제한적인 하락. 애플(-1.46%)은 UBS가 앱스토어 매출이 제자리를 걷고 있다고 주장해 매수 의견을 재확인 했음에도 하락.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67	대형 가치주 ETF (IVE)	-1.62
클린테크 ETF (CTEC)	-1.70	중형 가치주 ETF (IWS)	-1.63
소매업체 ETF (XLY)	-1.36	소형 가치주 ETF (IWN)	-1.28
온라인소매 ETF (EBIZ)	-0.28	대형 성장주 ETF (VUG)	-1.34
미국 인프라 ETF (PAVE)	-1.28	중형 성장주 ETF (IWP)	-1.18
핀테크 ETF (FINX)	-1.69	소형 성장주 ETF (IWO)	-0.96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2.5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1.69
클라우드 ETF (CLOU)	-1.19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1.25
사이버보안 ETF (BUG)	-1.38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1.08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2.55	미국 국채 ETF (IEF)	+0.01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3.11	하이일드 ETF (JNK)	-0.64
바이오섹터 ETF (IBB)	-1.59	신흥국 채권 ETF (EMBD)	-0.56
로봇&AI ETF (BOTZ)	-1.60	물가연동채 ETF (TIP)	-0.63
반도체 ETF (SMH)	-1.12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28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필수소비재	750.78	-0.97	-0.13	-1.77
커뮤니케이션	176.78	-1.14	+1.87	-9.22
IT	2,423.82	-1.26	+1.83	-3.25
산업재	861.70	-1.27	+1.15	-1.02
경기소비재	1,112.05	-1.37	-1.59	-5.57
헬스케어	1,478.10	-1.62	-0.14	-4.45
유틸리티	330.71	-1.66	+0.58	-4.90
에너지	653.32	-1.75	+2.40	-3.43
소재	512.73	-1.99	-0.40	-2.65
부동산	236.18	-2.50	-1.50	-7.37
금융	581.80	-2.60	-1.89	-5.3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 하락 출발 후 제한적인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는 2.80%, MSCI 신흥 지수 ETF는 1.68%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16.22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6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10% 하락. KOSPI는 1% 내외 하락 출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을 반납하자 하락 출발. 여전히 2차 전지 테마 중심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상승하기도 했으나,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일부 2차 전지 종목이 하락 전환하며 낙폭을 확대하는 등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진 점을 감안 상승은 제한. 장 마감 앞두고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해 KOSPI는 0.03% 상승, KOSDAQ은 0.09% 하락 마감.

이런 가운데 미 증시가 파월 연준 의장의 강한 매파적인 발언으로 하락한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달러화의 강세가 뚜렷해 NDF 달러/원 환율을 감안 원화 약세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외국인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더 나아가 친강 중국 외교 부장의 발언 등으로 미-중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물론, 미 정부는 대 중국 갈등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친강 부장의 발언을 반박해 관련 우려가 확대되지는 않음

한편,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서 3월 FOMC 회의까지 고용보고서는 물론, 소비자 물가지수 등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많이 있으며 이 지표 결과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점, 그리고 1월 경제지표에서 소비와 생산, 인플레이션이 전환한 점은 온화한 기후의 영향 때문이라며 연속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1%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이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도매재고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미국 1월 도매 재고는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1% 증가에서 예상치와 부합하는 전월 대비 0.4% 감소로 발표돼 지난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임.

미국 3월 경제 낙관 지수는 45.1에서 46.9로 개선됐으나 여전히 기준선인 50을 하회해 19개월 연속 비관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음.



## 2년물 국채 금리,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 상회

국제유가는 파월 연준의 강한 매파적 발언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하락. 더 나아가 계속되는 긴축 상황으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점도 국제유가 하락을 지속하게 만든 요인. 사우디 외무장관은 UAE와의 갈등이 자주 과장되어 왔으며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언급하고, EIA는 올해 원유 수요를 상향 조정했으나 파월 발언의 영향이 더 컸음. 반면, 천연가스는 전일 급락을 뒤로하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4%대 상승.

달러화는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의 최고 금리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고, 3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부각시키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유로화는 일부 위원이 앞으로 175bp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등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파월 연준의 강한 매파적인 발언이 더 큰 영향을 줌. 역외 위안화를 비롯해 멕시코 페소, 브라질 헤알 등과 함께 호주 달러 등도 달러 대비 약세.

국채금리는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FOMC에서 50bp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단기물 중심으로 급등. 다만, 10년물 국채 금리는 발언 직후 강세를 보였으나 경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더불어 3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인 2.52배를 상회한 2.73배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높았음에도 파월 발언의 힘이 2년물 국채 금리를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 넘게 상회하게 만들. 이 여파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더욱 확대.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연준의 강한 긴축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높아져 하락. 곡물은 달러 강세 여파로 부진했으나, 월간 세계 농업 수급 추정치 발표를 앞두고 제한적으로 하락했으며 밀은 상승하는 등 혼조세로 마감.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6%, 철근은 0.35%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7.58	-3.84	+0.42	Dollar Index	105.612	+1.21	+0.71
브렌트유	83.29	-3.53	-0.37	EUR/USD	1.0548	-1.25	-0.26
천연가스	2.69	+3.42	-3.17	USD/JPY	137.14	+0.89	+0.71
금	1,820.00	-1.91	-0.95	GBP/USD	1.1823	-1.68	-1.66
은	20.20	-4.59	-4.30	USD/CHF	0.9421	+1.22	-0.01
알루미늄	2,350.00	-1.34	-0.97	AUD/USD	0.6588	-2.11	-2.10
전기동	9,763.50	+9.45	+8.96	USD/CAD	1.3755	+1.04	+0.79
아연	2,954.00	-2.59	-1.55	USD/RUB	75.7876	+0.34	+0.98
옥수수	634.25	-0.31	+0.75	USD/BRL	5.1918	+0.64	-0.85
밀	698.00	+0.25	-1.20	USD/CNH	6.9947	+0.65	+0.58
대두	1,515.50	-0.83	+2.52	USD/KRW	1,299.40	+0.19	-1.78
커피	182.55	+1.25	-2.01	USD/KRW NDF1M	1,316.22	+1.42	-0.42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964	+0.60	+4.37	스페인	3.722	+2.50	+12.10
한국	3.652	-6.30	-10.80	포르투갈	3.569	-3.80	+5.60
일본	0.504	-0.20	-0.10	그리스	4.500	+0.10	+5.70
독일	2.692	-5.70	+4.10	이탈리아	4.527	-4.80	+5.0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